

■ 교육

특별활동에 너무 몰입하지 마라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대학입시를 위해 '특별활동(Extra Curricula Activity)' 많은 신경을 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시니어 학부모뿐 아니라 9-11학년 학부모들도 여름 방학에 어떤 액티비티를 해야 할 것인가 이곳 저곳을 기웃거린다. 비싼 비용들을 내고 서머 캠프에 참여 시키기도 한다. 미국 대학에 가려면 액티비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말 미국의 모든 대학들의 입시 전형에서 '특별활동'이 중요할까? 아이비리그 대학을 비롯해 주립대까지 학생의 액티비티가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까?

'미래교육연구소' (소장 이강렬)에 따르면 이는 잘못되니 생각이다. 학부모들이 미국 대학 입시에서의 액티비티 비중을 잘 모르는 데서 발생한 해프닝이다. 미국 대학들 가운데는 특별활동을 입학 사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보는 대학이 있고, 그저 참고 사항으로 보는 대학도 있다.

그렇다면 액티비티를 입학 사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는 대학은 어디이고, 중요하게 보지 않는 대학은 어디일까?

액티비티를 매우 중요하게 보는 대학은 미국 전체 대학 가운데 그 비율로 보면 얼마 되지 않는다. 매우 중요하게 보는 대학들은 아이비리그를 포함한 '최상위권' 대학들이다. 연구중심대학 기준으로 보면 20-30개 정도다. 사실 주립대학을 포함 대부분 대학들은 지원 학생들의 액티비티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런데도 학부모들은 마치 미국의 모든 대학들이 액티비티를 매우 중요하게 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녀들에게 특출한 액티비티 이력을 만들어 주기 위해 난리법석이다.

미국 대학 입시에서 액티비티의 비중은 그리 높지 않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학업적 요소로 굳이 그 비중을 따진다면 70-80% 이상이 학업적 요소다. 학업적 요소는 학교 내신 성적, AP-IB 성적, 그리고 SAT-ACT, 교과목 난이도, 학교 석차 등이다.

액티비티는 얼마나 중요할까? 미국 전미 대학 카운슬러 협의회(NACAC) 자료에 따르면 미국 200여개 대학 가운데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대학은 6.5%에 불과하다. 반면 학교 GPA는 74%이상의 대학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액티비티는 지원 학생이 모두 우수해서 학업 성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아이비리그 등 최상위권 대학에서 그 위력을 발휘한다. 이들 대학에서는 액티비티뿐 아니라 에세이, 교사 추천서 등이 힘을 발휘한다. 그러나 아이비리그 바로 밑에 그룹에서부터는 액티비티는 그저 요식행위일 뿐 이것으로 당락이 결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자녀가 아이비리그 대학을 지원하는 부모나 주립대학에 지원하는 학생의 학부모나 너나 할 것없 '액티비티 만들기'에 열을 올린다. 액티비티를 호연지기를 길러주고, 협동심과 리더십 키우며, 인성을 함양시켜주는 교과 외 활동을 보면 좋은데 이를 대학 입시의 수단으로만 보는 게 문제다. 액티비티는 그냥 액티비티로 즐기면 된다. 학교 공부 외에 액티비티를 많이 하는 것은 대학 지원과 관계없이 학생의 삶에 큰 도움이 된다. 이제 학부모들도 액티비티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할 때다.

사진=shutterstock

우리 동네 걷기 좋은 곳

Diamond Bar Loop Trail -Diamond Bar

Summitridge Park에 자동차를 주차하고 Diamond Bar Center쪽으로 조금 올라간다. 건물을 오른쪽에 두고 걷다 보면 트레일을 소개하는 표시판이 나온다. 여기서 내가 걷고 싶은 트레일을 고를 수도 있고, 그날 주어진 시간만큼 트레일 구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다.

본래 이 Loop 트레일은 빙 돌아오는 코스로 1.5마일 정도에 불과하지만 다른 트레일과 연결해서 걸으면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 필자도 방문했던 날 그 자리에서 여러 오르내리는 코스들과 연계하여 4마일 정도를 걸었다.

이 트레일의 특징은 산등성이를 오르내리는 구간이 많으며 특히 길이 미끄러우니 반드시 등산화와 착용하기 바란다. 대부분의 구간에 나무 그늘이 없으니 모자도 잊지 말고 챙기기 바란다. 3월에서 10월까지가 가장 걷기 좋은 때이다. 멀리 LA 주변의 산들이 병풍처럼 주욱 펼쳐져 있고, 평평한 땅위에 사방으로 펼쳐진 도시의 모습이 장관이다.

▶ Summitridge Park 주소
1425 Summitridge Dr.
Diamond Bar, CA 91765



▲ 이런 길을 오르내려야 한다. 사진=타운뉴스



▲ 걸으며 바라다 본 다이아몬드바의 주택가. 사진=타운뉴스

Kyung Sook Yu, D.D.S

개원 20주년 기념 스페셜

크라운 (PFM)
\$500

잇몸치료
\$200부터

틀니
\$1500

DR. Kyung Sook Yu
USC 치대 졸업

각종 보험 PPO / 메디컬 환영

1370 S. Beach Blvd. #E, La Habra, CA 90631
T.562.694.5850 월 - 목 9am - 6pm

Imperial Hwy
S. Beach
● 유경숙 치과
에당식당